

불자 세상보기



선업 스님
광 행복처유 센터 원장

요즘 발생하는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 분노의 표현이 이처럼 확산하고 극단적이었던 적이 있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실제 칠곡과 울산에서 벌어진 계보에 의한 아이 살해 사건은 한국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자신의 분노를 아이에게 표출해 아이가 죽음에 이른 사건이라 더욱 그렇다. 최근에는 교통체증과 다른 운전자의 행동에 대한 반응으로 도로 위에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로드 레이저'와 사이버 상에서 통제할 수 없는 분노를 표출하는 '사이버 레이저' 등 분노의 일방적 표출이 사회 현상화 되고 있다.

실제 일상 속에서 '욕'하고 모르는 감정을 통제 못해 일어나는 일들까지 분노 표현은 매우 다양하다. 특히 가정, 학교, 보육시설 등 평소 '안전지대'로 여기는 장소에서 발생하

는 공개적 분노의 표출은 안정적 치안에 기반하고 있는 일상적 생활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또한 사건 발생 시점의 예측이 어렵고 밤과 낮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이 더욱 사회적 파장을 증폭시키고 있다.

음식의 입장으로 보면 '분노'는 근본 번뇌로서의 '진에(嗔)과 지말 번뇌로서의 '분(忿), 한(恨), 뇌(惱)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분노'를 '분'과 '노'로 나누어 휴화산처럼 내적으로 쌓인 '노여움'과 활화산처럼 외적으로 작용하는 '화'로 나누기도 한다.

위키 백과에 따르면 노여움은 원한을 품고 있는 상태인 앙심(恨心)을 포함하며 마음 바닥에 쌓여 있으면서 폭발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반해 '화'의 경우는 외적으로 표출된 감정으로 정도에 따라 짜증, 분노, 분개, 증오, 적개심 등 다섯 단계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분노'는 과도한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되거나 가슴 속에 응어리가 과도하게 쌓인 경우에 이것이 잠재되어 있다가 감정을 자극하는 상황을 만나면 폭발하게 되어 있다.

특히 성장과정에서 정신적 외상이 있을 경우 분노 조절이 더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면 '노여움'으로 잠겨되어 있다가 다양한 '화'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화'의 발생도 예측 가능한 경우에는 어렵지 않게 다룰 수 있다. 문제는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오는 통제 불능의 분노 때문에 곤란을 겪는 '분노조절장애'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이다.

경기개발연구원 사회경제센터에서 발간한 <분노사회의 진단과 관리 전략>에서는 한국사회에서 일상화된 분노의 관리 방안으로 첫째 물질 자본 위주의 성장사회에서 사회적 네트워크 중심의 성숙사회의 패러다임 전환, 둘째 인성을 강조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확충 및 사회안전망을 포함하는 사회적 인프라 구축, 셋째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분노를 예방할 수 있는 삶의 질 지표 개발 등을 들고 있다.

이에 비해 경전의 답은 보다 현실적이다. <양국따라 니까야>에 보듯이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끼

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나, <법구경>에 나오듯 '그는 나를 욕하고 때렸다. 그는 나를 굴복시키고 나의 것을 약탈했다.' 라고 적의를 품게 되면, 원한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한다. 오로지 이러한 적의를 품지 않을 때, 원한은 사라진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 원한을 여월 수 있는 분노 해결의 실제적 방법으로 '자애관'이 제시된다.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발원하면서 '모든 존재들이 안락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라고 마음속으로 반복하면 분노의 사슬이 녹게 되고, 여기에 보태어 자기 자신의 분노 조절 능력을 자각하는 연습을 하고 알아차림을 통한 '멈춤' 능력 향상에 힘쓰다 보면 분노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알아차려 멈추고 존중으로 배려하는 불교적 지혜를 통해 노여움의 족쇄를 풀고 극단적 분노 표출의 세태를 효과적으로 안정시켜 분노가 조절되는 사회로 진입했으면 한다.

이런 관행이 바뀔 때 불교는 정말로 변화할 수 있다. 사람이 변하지 않고는 개혁이나 정화는 의미가 없다. 제도가 아니라 승단이 변화해야 한다는 덕송총림 방장 설정 스님의 말이 떠오른다.

이런 관행이 바뀔 때 불교는 정말로 변화할 수 있다. 사람이 변하지 않고는 개혁이나 정화는 의미가 없다. 제도가 아니라 승단이 변화해야 한다는 덕송총림 방장 설정 스님의 말이 떠오른다.

이런 관행이 바뀔 때 불교는 정말로 변화할 수 있다. 사람이 변하지 않고는 개혁이나 정화는 의미가 없다. 제도가 아니라 승단이 변화해야 한다는 덕송총림 방장 설정 스님의 말이 떠오른다.

발언대

신 연애풍속도 '썸'

우리에게 연애, 사랑은 낭만적인 어떤 무엇이었다. 하지만, 요즘에는 '썸'이라는 말로 대체된다. 흔히 '썸'은 연애 직전 '썸싱(Something)' 있는 단계를 이르는 것이 이제는 '썸타기'만을 즐기는 현상도 생겨나고 있다. 신 연애풍속도 '썸'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꿈 키워주는 사회 조성해야"



허남결

동국대 윤리문화학과 교수

최근 우리 사회에 '썸'에 대한 열풍이 거세다. 호감은 있지만 본격적으로 사귀기 직전의 남녀 사이를 지칭하는 신조어다.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으로 달려가던 연애는 사라진 지 오래다. 일각에선 '썸'을 3포 세대(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젊은 세대)의 현상으로 풀이한다. '3포 세대'는 취업난, 불안정한 일자리,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용 증가 등의 사회적 압박으로 인해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 청년층을 일컫는다.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과제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용어이자 슬픈 자화상이다.

이 같은 '썸타기' 현상은 불안한 미래를 둔 젊은이들이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자기 주체성이 결핍되고, 책임을 외면하는 요즘 젊은이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또 사회현상도 담아낸다. 삼포세대라 일컬어지는 불안한 경제의 희생양이 된 젊은이들이 행복 추구하기를 포기한 채 유희적 성(sex)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런 모습들은 엄연한 세대의 한 단면일 뿐, 함부로 폄하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젊은 세대의 꿈을 사회가 보듬고 키워주려는 분위기의 조성과 확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애매모호한 관계 '썸'으로 규정



김영란

나무여성인권상담소장

'썸'이라는 단어는 연인으로 가기 이전의 감정을 한 단어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단어로 생각한다. 이는 연애라는 과정으로 가는 청춘남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감정으로 아예 오를 수 있었던 감정이 아니다. 이를 거쳐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연인의 관계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복잡 미묘하고 애매한 관계를 규정짓는 단어가 분명 예전에는 없었다. 그런데 신세대들이 이런 감정도 의미를 부여해 '썸'이라는 단어로 관계의 실상을 밝혀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사실 연인 관계는 서로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단계다. 함께 데이트를 해야 되고, 기념일을 챙겨주어야 하며, 또 수시로 전화도 해야 하는 등 의무감이 부여되는 관계다. 그러나 이런 연인관계로 발전하기 이전에 이 사람이 나와 맞는지 안 맞는지 서로를 살피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며 당연한 과정이다.

물론 '썸'에 대해 가벼운 만남을 선호하는 신세대들의 세태를 반영한 부정적 '단어'라고 비판하는 시선도 있음을 안다. 하지만 '썸'이라는 단어로 연인 이전의 단계를 규정짓고 이를 하나의 또다른 인간관계로 인정하는 젊은이들의 유연함, 솔직함에 지지를 보낸다.

"설렘 끝나고 방치...이건 아니죠"



김경민

동국대 불교학부 학생

요즘 '썸'이라는 연애 풍속도가 유행이다. 올해 대학에 입학해서 보니 '썸타기'를 하는 친구들이 적지 않다. 그런 친구들을 보면 상당히 신기하다.

경험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다. 썸남과 썸녀가 생기고 이들과의 '썸타기'가 이어진다. 본능적인 두근거림과 설렘 그리고 요묘한 감정의 줄다리기가 진행된다. 줄다리기에 끝나면 '썸'도 있지만, "사귀자"라는 고백 이후 진정한 연애의 길로 가는 경우도 있다.

'썸'을 타다 실제 연애로 발전했을 경우 설렘은 사라지고 상대방을 방치하는 사례가 왕왕 발생한다. 물론 상대방과 그의 지인들에게 비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람을 만나서 사귀고,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누군가 그랬다. "연애는 가장 속속들이 지지부진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연애가 깊어지면 현실이 되고 현실은 다시 생활이 된다.

'두근두근'한 감정만이 연애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갈 수는 없지 않나. 설렘만이 있는 연애에 대한 믿음 또한 불교에서 경계하는 '전도몽상(顛倒夢想)'이라고 생각된다. 뒤바뀐 헛된 생각은 멀리 떠나보내야 한다.

社說

94년 개혁 정신 되새기며 정진해야

1994년 4월 10일 조계사 승려대회는 만신창이가 된 한국불교를 정화하기 위한 법석이었다고, 종단 개혁의 신호탄이었다. 그 신호탄이 발사되고 벌써 20년이 흘렀다.

강산이 두 번 변화한 만큼 한국불교도 많은 변화를 맞았다. 7명의 총무원장 스님이 조계종을 진두지휘하며 포교와 사회사업에 힘쓰고, SNS의 유행과 더불어 법륜·마가·정목 스님 등은 국민 힐링 멘토로 부상하게 됐다.

하지만 달라지지 않는 점도 있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승풍 실추 사건부터 각종 비리, 총무원장을 비롯한 각종 종단 선거는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1994년 내보인 5대 지표가 무색할 정도다.

1994년 개혁의 성과는 분명하다. 세속 정치세력과 결탁해 종단을 사유화하려 했던 기독교 세력의 전횡을 사부대중의 공의로 바로잡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직선제와 비구니 참종권 확대가 좌절되고 감사처 신설이 이뤄지지 못했으

며, 종헌에 '사찰 재정 공개'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개혁의 태생적 한계다. 또한 제도개혁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일상 관행에 대한 문제 의식이 약했고, 근원적 문제 해결은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종단 활동의 99%가 정치이고 거래인 상황이 돼버렸다. 이에 정치적 의도와 성격이 갖은 자정 기구도 자정활동의 정치화라는 역기능만 남겨 왔다.

이제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이 준비해야 하는 것은 철용성 같은 성벽과 해자같은 사회, 사부대중, 출세가자 사이의 간극과 장벽을 부수는 일이다.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의 지적처럼 미래 세대는 이 같은 장벽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행이 바뀔 때 불교는 정말로 변화할 수 있다. 사람이 변하지 않고는 개혁이나 정화는 의미가 없다. 제도가 아니라 승단이 변화해야 한다는 덕송총림 방장 설정 스님의 말이 떠오른다.

불교계, 문화재 수리 과정에 주목하자

문화재청이 4월 9일 문화재 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25개 방안을 담은 '문화재 수리체계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문화재청이 발표한 대책에는 수리업 등록요건 중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할 수리기술(기능)자를 4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등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와 함께 눈길을 끄는 것은 전통재료 인증제 및 목재 수리지 조성 부문. 전통기술을 육성하겠다는 대책이다. 단절됐거나 단절위기에 놓인 전통 재료·기법의 계승·복원을 지원하는 한편, 문화재 복원용 목재 수리지 조성, 전통기술 규명을 위한 '전통기술소재은행' 구축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불교계는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불교계 사찰은 전통적인 기법이나, 문화유산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

찰들이 목재 수리지 조성 등에 연계해 참여하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

무엇보다 불교는 막제화된 문화가 아니라 지금도 그 공간과 문화 안에서 생활과 수행이 이뤄지는 살아있는 문화유산이다. 때문에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잘 보존해 오고 있다.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만큼 불교계는 문화재 수리체계 변화를 자신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다시 한번 살피고 가치를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문화재청도 이번 대책을 마련했던 문화재 수리·보존 사업 비리를 종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번 대책에는 문화재 수리공사의 부실을 부르는 고질적 이유로 지적돼온 촉박한 공사기한 문제, 공무원·자문위원 등과 수리업체 간의 유착 등에 대한 개선책은 없기 때문이다. 문화재 보존은 관심으로부터 시작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해월 인쇄인 : 배성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회사용 연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실시간 뉴스 연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연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사 : (054)634-3429
부산지사 : 070-7697-52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흥교 (법화종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칠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구단구궁법대학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8-3 (서울지하철 1호선 병점역 앞) ☎ 전화 010-7415-0803

인터넷 검색창 :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자비실천불교연합회>

전국 서울, 수원

수강생모집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 강의 일정표**
-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대 재해석)
 - ◇ 제 4일 - 구단구궁공신의 제법칙
 - ◇ 제 5일 - 구단구궁 실천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정·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